

광주의 미래 설계할 컨트롤타워 부재

광주시 도시계획 미래·정체성이 없다

〈2〉 같은 도시공간, 다른 미래계획

도시 미래를 내다보고 수립하는 계획들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각 실·과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배정받아 각각 용역업체에게 맡기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광주의 미래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7년 2월 11억 5800만원을 투입한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으며, 이에 근거해 12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2030 광주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지침이 된다. 도시관리계획은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이용·

각 실·과 독자적 예산에 용역도 제각각... 도시계획 통합 관리 안돼

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일련의 계획이다.

그러나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도시재생국 도시계획과가 맡고 있다.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건축, 토목, 도시계획 등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각 실과에서는 개별법에 근거해 각 분야별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같은 도시재생국 도시재생정책과에서는 2017년 12월 3억6000만여원을 들여 '2030 광주도시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계획'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해 '사문화'된 실정이다.

담당 실과 관계자는 "경관이 규제 측면이 강하며, 따라서 시정 전반의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계획의 집행력이 전혀 없다"며 "경관위원회에서 위원들의 경관심의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국 건축주택과에서는 지난 2014년 4억여원을 들여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에 맞춰 재개발, 재건축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구역 해제 역시 매몰비용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각 자치구에서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으로 인해 구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원주민들이 내쫓기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생태국 공원녹지과는 지난 2월 4억여원을 들여 '2030 광주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역시 공원녹지 분야의 최대 현안인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도

입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지 못했다.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는 지난 2016년 2억여원의 예산으로 '2025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2025 도시기본계획의 일부 지표만 인용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는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인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내용을 독자적으로 수립하면서 상호 다른 통계를 사용한 것이다.

이봉수 광주도시재생연구소 이사는 "담당 실과가 다르고 용역을 맡은 업체와 전문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빚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중앙정부의 법과 제도가 지금과 같은 하향식이 아니라 우선 지방자치에 맞게 상향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지자체에서도 모든 계획을 통합 관리해 같은 공간에서 다른 계획을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드루킹 사건'의 진실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9일 오후 '드루킹' 김동원 씨(오른쪽)가 서울 강남구 허약법 특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2022년 9만1천원으로 인상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지 9만1000원으로 인상하고,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9일 예비군 분야 '국방개혁 2.0'을 설명하면서 "2박 3일인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한 보상비를 올해 1만 6000원에서 2022년까지 9만1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명으로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지정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해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한다"며 "개전 때 필요하게 운용되는 동원위주 부대인 동원사단과 보충대대는 최정예 자원으로 동원 지정하고 훈련을 강화해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동원전력사령부는 평시에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의 동원예비군 자원을 전담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 당국자는 "전방 군단과 지역방위사단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동원 위주 부대들의 지휘체계를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으로 일원화해 동원자원의 관리와 훈련을 강화하고, 전문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이들 부대의 전시 전방투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미수습자 가족 만나 위로

9일까지 전남지역서 휴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목포시항에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둘러보고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사법부 수장이 세월호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목포시항 세월호 선체 수습 현장을 방문해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미수습 가족들을 만나 애환을 듣고 위로했다.

전연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대변인은 "사법부 관계자가 세월호 현장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며 "대법원장이 연락도 없이 찾아줘 더없이 고맙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미수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며 "사법부가 큰 관심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 대법원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보니 어린 자녀들을 잃은 부모의 애끓는 심정을 헤아리겠다"며 "사회 모두가 책임을 통감한다. 현명한 살마리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지난 7일 장흥고를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우드랜드에서 1박을 하는 등 9일까지 3일간 전남지역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다. 세월호 선체 수습 현장을 방문한 것도 휴가기간 개인 일정이었다. /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김명수 대법원장(왼쪽 두번째)이 9일 목포시항에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둘러보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세월호 현장 방문

2차 남북정상회담 일정 잡힐까

통일부 "북, 13일 고위급 회담... 회담 준비 협의 제의"

남북이 오는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2차 남북정상회담 일정 조율이 이뤄질 것인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9일 북측이 이날 오전 통신문을 통해 13일 고위급회담을 개최해 판문점선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의했고, 정부는 이에 동의하는 통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영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북측과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고위급회담은 올해 들어 1월 9일, 3월 29일, 6월 1일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남북정상회

담 일정이 조율될지 주목된다. 판문점 선언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대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평화협정 협상에 따라 마련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시기가 이르다면 이달 말로 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정의를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측의 남북고위급 회담 제의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판문점 선언 합의의 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논의와 관련 "북측과 만나봐야 알 것 같다"며 "의제는 통일부가 밝힌 그대로"라는 원론적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임야·삽니다

당일 매입가능, 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암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6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을 볼.

무료 공개 강의 일시
조선대 : 9월 6일(목) / 주간 3시, 야간 7시

2018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8월 1일 ~ 2018년 8월 31일
- 교육기간 : 2018년 9월 6일 ~ 2018년 12월 13일
매주 목요일 주간 3:00~5:00 · 야간 7:00~9:00
- 수 강 료 : 22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문의 : 062)230-7700~2
- 상담지도교수 : 연락처 010-9416-1200

경주최씨 총렬공(광위)파 족보편찬 공고

경주최씨 총렬공파보 편찬위원회에서는 파보를 발간한 지가 37년이 지남에 따라 늦은 감은 있으나 역사적이고 자랑스러운 파보 1981년(신유)보를 계승 중간하고, 발간시 누락된 종원과 그 후 출생한 후손(남,여)들을 추가 등재하여 우수하고 귀중한 족보가 가보로 보존 될 수 있도록 편찬코자 합니다.
종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누보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단 접수기간(2차) : 2018. 10. 31까지
(1차 2018. 7. 31)
2. 수단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장남은 제적등본도 같이 첨부)
3. 접수처
- (우61619)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49
(월봉빌딩 2층)
- ☎ 062)366-9427 팩스 062)366-9428
4. 연락처
- 회 장 011- 609- 7951
- 사무국장 010-8615- 5043
e-메일 lapa560@hanmail.net

경주최씨 총렬공(광위)파 족보편찬위원회
위원장 원호 최 기 용
위원장 청암 최 준 동